

한국당, 군부대 방문 하려다 '문진박대' "靑이 시킨 것, 분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진상조사단이 24일 북한 목진 박의 삼척항 입항사건과 관련, 해군 1함대 사령부를 찾았으나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하며 사실상 문진박대당했다.

나 원내대표와 김영우 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은폐조사 진상조사단장을 포함한 조사단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동해해경 삼척과 출소에 방문, 윤병두 동해지방법원 양경철정장의 브리핑을 듣는 등 상황을 확인한 뒤 어민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이어 해군 1함대를 방문했으나 1함대 측이 "정식으로 승인받으면 정중히 모시겠다"라며 출입을 제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데 이걸 막는 청와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국방부의 사기, 군인의 사기 운운했는데 청와대의 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오늘의 이 사태가 우리를 괴멸의 대상으로 보는 사태 아닌가"라며 "우리가 제1야당에 왔는데 문진박대당해야 하나. 이것은 청와대가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노크 귀순 때 분명히 그 후 군부대를 방문했다. 당시 대신후보였고 당연히 방문하도록 해줬다"라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온 국민이 공감해하고 걱정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 아닌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굳이 군부대 방문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지금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린 게 누구냐. 경제 작전에 실패하고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하는 국방장관이 국민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도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회의원 10여명이 국민 20만명을 대표해 진실 규명을 위해 현지를 방문했는데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이 모습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했다.

뉴스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80일 만에 파행 종지부

추경, 6월 국회서 처리하되 재해추경 우선 심사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이날 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마지막 분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5일 이후 80일 만에 국회 파행 사태도 해소됐다.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요구했던 패스트트랙 사과와 관련한 포괄적 유감표명을 했다.

트럼프 美 대통령, 29일 방한

1박 2일 일정 文대통령과 30일 정상회담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상세 일정은 한미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두 정상은 2017년 6월 이후 8번째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30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양국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가리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내가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워싱턴으로 떠

위공직자법 최수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 대한 각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의 정신에 따라 처리키로 여야 3당은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합의정신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여야 3당은 문 의장이 경제전문회의 중재안으로 내놓았던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서는 그 형식과 내용을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총리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 분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 3당은 지난해 10월 구성에 합의했던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원회'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토록해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남북 정상회담은 늘 열려 있다"며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때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백악관의 공식 브리핑이 아닌 것(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6.7% "북한 어선 사태 등에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태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는 8주 만에 역전됐다.

55.3%) ▲30대(55.7%→51.2%, 부정평가 42.3%) ▲40대(62.0%→60.0%, 부정평가 36.4%) ▲60대 이상(38.4%→36.6%, 부정평가 58.1%) ▲노동직(49.9%→49.5%, 부정평가 57.2%) ▲사무직(63.9%→68.1%, 부정평가 38.6%) ▲자영업(40.2%→38.5%, 부정평가 58.2%)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6월 3주차(17~21일)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2.8%포인트 하락한 46.7%(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23.9%)를 기록했다고 24

반면 ▲광주·전라(66.6%→

부정평가 48.3%로 8주 만에 긍정평가 역전해

수도권·PK·충청 등 대부분 지역 지지율 하락

"北 어선·인천 빨간물 사태 등 악재 겹친 영향"

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포인트 오른 48.3%(매우 잘못함 34.3%, 잘못하는 편 14.0%)를 기록했다.

67.9%, 부정평가가 26.5%) ▲학생(39.9%→44.8%, 부정평가 47.0%) ▲가정주부(40.6%→42.2%, 부정평가 53.1%) 등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기·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포인트) 내에서 역전됐다. 지난 4월 4주차 조사(부정평가 48.4%, 긍정평가 47.4%) 이후 8주 만이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감소한 5.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기·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포인트) 내에서 역전됐다. 지난 4월 4주차 조사(부정평가 48.4%, 긍정평가 47.4%) 이후 8주 만이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감소한 5.0%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은 지난 17일 50.3%를 기록했지만 북한 어선 사태의 여파가 확대된 지난 20일 47.3%, 21일 46.6%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런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서울(50.1%→46.3%, 부정평가 47.9%) ▲경기·인천(53.3%→49.7%, 부정평가 46.3%) ▲부산·울산·경남(44.4%→41.3%, 부정평가 54.1%) ▲대전·세종·충청(42.2%→39.9%, 부정평가 54.7%) ▲50대(46.4%→40.9%, 부정평가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4만6691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06명이 응답을 완료해 5.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호남신문 062)224-5800 062)222-5548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